

고용평등법 토론회

【광주=차명진 기자】 한국노총광주 직할시 지역본부(의장 서수정)가 주최하는 「남녀고용평등법 정착을 위한 토론회」가 지난 10일 광주시 유동 노총회관에서 광주·전남 노동조합간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
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호준 교수(전남대 법대)는 “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여성노동자의 산업현장 참여도가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80년 4월부터 발효중인 고용평등법은 그 의의가 크지만 실효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
노 90.
9.14